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운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43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0. 7.

발 의 자 : 정운천 · 김은혜 · 권명호
지성호 · 백종현 · 구자근
김형동 · 홍문표 · 송언석
이만희 · 김정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경마의 마권은 경마장 또는 장외발매소를 방문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마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말산업 피해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, 국내 말산업의 90% 이상이 경마에 의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구매의 허용은 경마중단의 장기화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말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과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이라고 여겨짐.

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더불어 현재 성행하고 있는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사설경마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다중의 운집이 불가피한 현행 마권 발매구조를 개선하여 말산업 육성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불법사설경

마 이용자를 합법경마로 견인하는 한편,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온라인 발매채널로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(안 제2조제6호,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, 제51조, 제53조).

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표(票)”를 “표(票)(전자적 형태를 표현한다)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외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발매·환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.

④ 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 발매 시행으로 인하여 「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5조에 따른 매출 총량 초과 우려가 있을 경우 제3항에 따른 발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5. (생략) 6. “승마투표권”이란 경마시행시 승마(勝馬)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받으려는 자의 청구에 따라 마사회가 발매하는 승마투표방법·마번(馬番) 및 금액 등이 적힌 <u>표(票)</u> 를 말한다. 7. ~ 9. (생략) 제6조(마권의 발매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표(票)(전자적 형태를 표현한다)</u> -----. 7. ~ 9. (현행과 같음) 제6조(마권의 발매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마장 및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외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 발매·환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.</u> ④ <u>마사회는 제3항에 따른 마권 발매 시행으로 인하여 「사</u>
<u><신설></u>	

